SOCIETY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횡단보도 스마트 가림막, 수리비 부담에 철거"

돌발적 기상 상황 감지센서로 신속한 작동 장점
보수비, 설치비보다 비싸고 재설치로 예산 낭비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 특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스마트 그늘막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수비용 때문이다. 보수비용이 설치비용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철거를 결정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폭염 저감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주요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일반·스마트)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그늘막은 총 690개소(일반 601개소·스마트 89개소)이며, 올해 추가로 120개소(일반 66개소·스마트 54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일반형 그늘막은 파라솔 형태로 항상 펼쳐져 있는 형태이고,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과 태양광 기술이 접목된 다기능 시스템으로 특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펼쳐진다.

최근에는 주변의 온도, 바람, 일조량 등을 감지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스마트 그늘막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스마트 그늘막의 경우 잔고장이 잦아 많은 수리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직접 개폐를 조절하는 일반(파라솔) 그늘막의 설치비용은 150만~180만원 선이다. 간단한 수리는 유지보수 용역사에서 무료로 처리한다.

반면 스마트 그늘막의 설치비용은 880만~940만원 수준이다. 단순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용이 대략 2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림막 지지대 등의 파손이 심각할 경우 오히려 설치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수리비로 투입된다. 풍속·온도·조도 감지센서(sensor) 등 고성능 장비까지 바꾸게 될 경우 수리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스마트 그늘막을 철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2017년 설치된 동구 계림1동 스마트 그늘막이 최근 강풍으로 인해 부러졌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보수에 나섰으나 용역업체 측에서 설치비를 상회하는 비용을 청구, 결국 스마트 그늘막 수리를 포기하고 철거 조치했다.

하지만 그늘막 철거로 주민들은 뜨거운 햇빛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씨(50·계림동)는 "그늘막을 새로 늘려도 모자랄 판에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며 "2~3분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온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다시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스마트 그늘막보다 관리비 부담이 적고, 설치비도 적게 드는 일반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스마트 그늘막은 수리비가 설치비보다 많아 철거했다"며 "추가 예산을 마련해 파라솔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영산강청, 서방천 하수도정비

431억 투입…2028년 완공 목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섰다.

19일 영산강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 서방천 하수도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서방천~신안교 인근 지역은 지난 7~8월 지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서 2020년에도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광주 북구는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해 하수도정비대책(우수관로 5.862㎞ 개량·신설 등)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영산강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수도정비 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총 431억원(국비 13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북구는 오는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북구는 극한 강우에도 견딜 수 있는 하수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영산강청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우선 교부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며 "주민들이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신대, 캄보디아서 글로컬 경쟁력 강화

국립기업혁신대·캄포트 지역기술대·첸라대와 협약

캄보디아 국립기업혁신대와 협약 체결 모습.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을 받아 UCC I-N-G 멀티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동신대학교가 캄보디아 3개 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컬대학 UCC G-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동신대 방문단은 지난 9~14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캄포트(Kampot) 주에 위치한△국립기업혁신대학교△캄포트지역기술대학교△첸라대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UCC(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는 지·산·학·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공형 강소연합대학으로, I-N-G 멀티캠퍼스 체제를 갖추며 이 중 해외에 들어서는 G(Global)-캠퍼스는 우수 외국인유학생 교육과 전남 지자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담당하는 포스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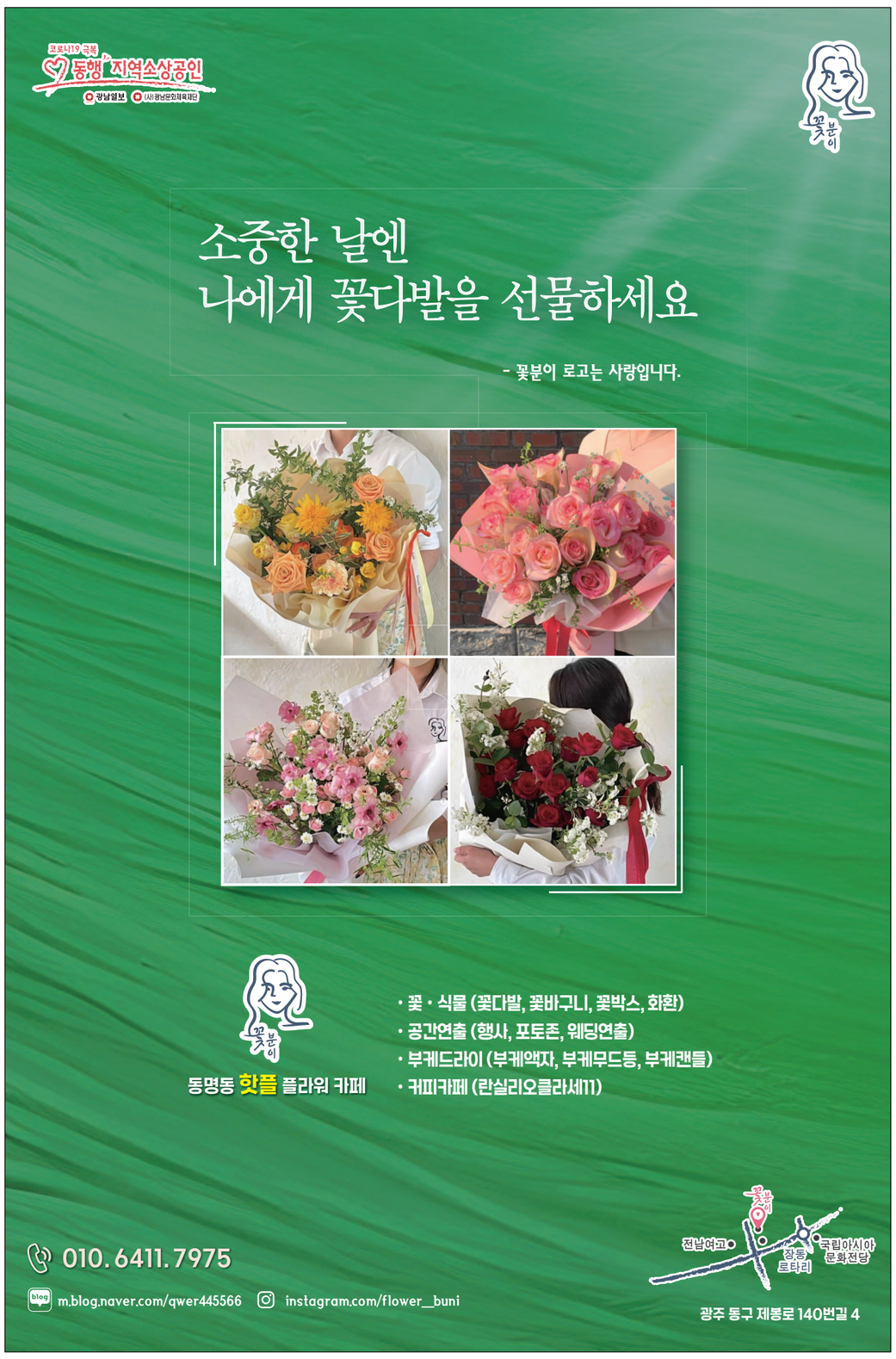
국립기업혁신대학교와 캄포트 지역기술대학교는 캄보디아 산자부 산하 직업기술 대학교로, 전기·자동차·전자·기계 등 현지 기업 취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글로컬대학 UCC G-캠퍼스에 캄보디아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해 실무역량을 키우고, 이들을 전남 지자체 소재 지역 육성캠퍼스(N-캠퍼스)에서 지역 맞춤형 전문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첸라대학교는 프놈펜에 위치한 의학·간호학 특화 대학으로, 캄보디아 국가지정 직업훈련기관(RCRC센터)을 운영하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어 동신대 방문단은 Vattanac Vichea VICHEA School에서 외국인 입학설명회를 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 이 학교에는 약 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날 설명회에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 120여명이 참석했다.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은 "해외 자매대학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전문 인재로 성장하고 전남에 정주할 수 있도록 UCC G-캠퍼스를 잘 구축해 가겠다"면서 "대학과 전남의 공동 성장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글로컬대학의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동구, 소상공인 창업매칭데이 광주 동구는 19일 충장로 갤러리존에서 임택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원, 충장로 상인, 창업희망자가 참여한 가운데 충장상권 공실상가 채움사업 '소상공인 창업매칭데이'를 개최했다.

북구,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소상공인 1000만원·주택피해 주민 700만원 등 총 142억 규모

광주 북구는 올 여름 폭우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6일 북구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당초 지원금은 사업장 피해 소상공인 300만원, 주택 피해 주민 350만원 등 총 63억여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피해 주민에게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북구 주민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기존보다 79억원이 증가한 총 142억여원 규모다.

피해 소상공인은 1000만원, 주택 피해 주민에게는 700만원까지 증액해 지급된다.

북구는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침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보다 확대 지급하게 됐다"며 "피해 주민 빠짐없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날 침수 피해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침수 피해지원 및 중장기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갖고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을 안내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산구, 행안부 특교세 20억원 확보

화재·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 속 안전 기반 강화

광주 광산구는 반복되는 재난 상황 속 지역 안전 기반 강화와 현안 해결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어룡동, 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최근 극한 호우로 발생한 침수, 도로유실 등 광범위한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폭우와 함께 여름철 폭염, 대형 화재 등 재난 재해 상황이 반복되며 신속한 대응과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힘썼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로, 취약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 확보, 지역 현안 해결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산구는 앞서 폭염 대응 및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 응급 복구를 위한 광주시 보조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9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극한 호우 등 재난 예방 복구 특교세 6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